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 의 록

서천군의회

2019년 9 월 6 일 (금) 14시 09분

안 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19년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심사의 건

(14시09분)

○간사 김범수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김범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아홉 분의 위원님 중 교육청 교육과장님께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장 수여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안전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2019년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심사위원회 구성은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하고 소속위원과 사회단체추천 위원 2명을 추가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촉장 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여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수여순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장 수여 ---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고요. 회의에 앞서 현재는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연장자이신 조진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진연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진연

조진연입니다. 오늘 위원장 선출이라는 안전 처리를 위해서 본인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안전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임시위원장 조진연

그럼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미혜 위원

가장 연장자시고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냥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조진연

다른 위원님들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범수

위원장님께서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군의회 의원 국외출장규칙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절차와 동일하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선출하고자 합니다.

2.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그럼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애 위원

(거 수)

○위원장 조진연

예, 신상애 위원님.

○신상애 위원

나미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진연

신상애 위원님께서 나미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나미혜 위원님을 부위

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미혜 위원님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조진연

다음은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사는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범수

의정팀장 김범수입니다. 심사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아홉 분 중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의결정족수에 달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규칙에 규정된 심사기준표를 참고로 평가하시어 가부를 결정해주시고 필요시 조건부 가결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지체없이 서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심사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분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에 앞서 회의공개에 따른 심사위원회위원의 실명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연

간사는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사항 중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위원 실명 공개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란 위원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진연

예,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명을 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팀을 대표하여 조동준 의장께서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장 조동준

--- 출장계획 PPT설명 ---

○위원장 조진연

조동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안 하시니까.

○위원장 조진연

예, 말씀하십시오.

○공금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저는 이것들 의미 없다고 보고, 어차피 다 같이 다니면서 얘기 같이 듣고 정리하실 거니까. 이건 서류상으로 형식을 갖추신 거라고 보고.

일단 저는 늘 군의회 해외 다니실 때 국외출장 다니실 때에 왜 이렇게 의사와 직원들이 많이 따라다니냐..... 전에는 권위적인 부분도 있었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그래서 좋은데, 지금은 뭐 삼성 이재용도 자기 혼자 캐리어 끌고 해외출장 다니는 시대인데 그래도 인원조정이 2명 정도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해왔잖아요. 열풍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국내에 우리 서천군에 적용할 때에 우리 서천군과 실정이 안 맞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이미 완성된 모양만 거의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정으로 보건대 게이트 헤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도 있고 또 히드로공항으로 가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의장 조동준

예.

○공금란 위원

거기에서 콘월까지 가는데도 상당히 승용차로 한참 가요. 그런데 승용차로 움직이시나요?

○의장 조동준

아니요.

○공금란 위원

관광버스로 움직이시죠?

○의장 조동준

예.

○공금란 위원

관광버스 하루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나보죠? 우리돈으로.

○의장 조동준

일단 뭐 계획……

○공금란 위원

일단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현지 사정에 맡기겠지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 주민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행정의 어떻게 거기에 협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든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때 생태원 관련해서 봤을 때에는 이든프로젝트에서 5박 6일을 다 지냈거든요? 민박하나 잡아놓고 같이 계속 그 관계자들 미팅하고 그랬는데도 다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지중열 같은 것은 25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했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배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음식쓰레기는 폐지 이런 거랑 섞어서 100% 다 거기 공원 내에 거름으로 쓰고, 또 유리라든지 사기 이런 것들은 계속 블록을 찍어서 한 구간도 보도블럭 깔지 않았어요. 계속 나오는 대로 만들어서 자체에서 조그마한 공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데요.

처음에 시작한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배워와서 적용했으면 좋겠고 또 뭐 대영박물관이나 여기 나와있는 음악당이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는 오시되 정말 서천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

려고 하면 한군데에 적어도 게이치헤드나 이런 데까지 굳이 먼데까지 가지지 말고 이든프로젝트나 이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좀 시스템이나 주민들 참여, 행정의 협조 이런 것들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런던습지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는 번화가에 있는 호수라서 장항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습지보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우리와 다른…… 그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시설이거든요. 이든프로젝트도 내부에 있는 식당 하나가 하루에 2,00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다른 주변에 너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의 시설. 아마 게이치 헤드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콘월에서 공항 쪽으로 가다보면 세계적인 스톤에이지 있잖아요? 스톤에이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시설 없어요. 최소한의 카페 이 정도.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설, 주변에 부대시설 해야 되고 이런 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얼마나 잘 살려내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진연

예, 생태연구소장 공금란 위원이 전문가답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또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을 가서 독일 가서 쓰레기장이죠? 그 3대 때 가서 그것을 연구하고 듣고 몇 군대를 보고 해서 답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비인에다가 쓰레기를 해서 아마 충남에서도 제일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데가 비인 쓰레기장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주시고 우리 소장님 말씀같이 우리 서천군의 특징이 뭐 한다고 하면 우선 짓는 게 건물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보면 우선 건물부터 들어가고 시작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도 역

시 그것도 다 건물부터 들어가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문산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것들 재활용해서 하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외국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3대 때 가서, 1대 때 가서 우리가 100명을 보냈어요, 공무원들을.

왜냐면 우물 안 개구리에요. 아무리 여기서 배운다고 해도 보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도 공무원들도 후진데 보낼 거 없이 좀 나온 데 뭐가 다르나 연구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이드가 가서 설명 해줘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사람이 가서 설명하면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가이드를 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명할 때 번역하더라도 좀 알아야 번역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번역하면 엉뚱한 소리가 되니까 그 문제 좀 연구 해주시고서 떳떳하게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최병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항 브라운필드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이미 집행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거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다가 중앙부처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거기다 시설물을 하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집행부가 용역도 썼고 사업이 지금 상당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들이 지금 가서 현지를 견학을 하고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가고 있는 이 현안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 선진지 견학의 명분이 지금 시점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브라운필드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의 진행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히 가고 있는데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은 개진할 수 있겠지만 갔다 와서 단체장이랑 같이 연속으로 무슨 워크숍을 한다

든지 이게 특별한 어떤 뭔가 반응을 시키려면 서천군의회에서 어떤 다른 행정을 어떤 목적이든지 뭔가 좀 해서 의견반영을 시켜야 할 텐데 지금 사실은 집행부가 상당히 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장 조동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기획실에서 진행 중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에서 함께 가기로 기획팀장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은 용역들이 저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부기관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용역도 집행부에서 마무리하는 이 용역이 사실 국가에서 받아줘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 한다고 정부에서 무조건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병용 위원

다녀와서, 다녀와서 단체장 그다음에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팀들하고 서천군의회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으면 이번 해외연수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

○의장 조동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브라운필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례로 들고 있는 이런 사례들, 물론 뭐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연구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제출될 때는 그냥 저희가 자료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실상이나 아까 우리 공금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상황도 우리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실제 그게 그 사례가 브라운필드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우리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용 위원

그리고 참고로 여기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는 브라운필드사업에 아무 상관도 없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생태원 같은 경우는 브라운필드 사업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서천군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공금란 위원

연관해서 지금 인공호수 만드는…… 그런데 지금 가시는 유럽 이런 데는 인공호수를 일부러 판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서천 신성리갈대밭에 호수 만드는 게 진짜 어이없었거든요. 옆에 금강물이 어마어마한데 안에다 호수 만들고, 지금 또 그 뒤로 다시 또 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이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우리와 달라요. 이게 오염토라고 해도 거기는 고령토 생산했던 데라서 우리하고 다르고 고령토 생산해서 그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의 그냥 살려서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간 거지 일단 처음에 가시면 좀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들었던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에 폭 들어가 있는 규모는 작는데 내실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의 천사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게 독일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언덕에 그거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그런 게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거만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 조동준

예.

○위원장 조진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나라별로 각각 하는 방식이 다를 테니까 우선 의원님들이 자료를 뽑아서, 지금 의원님들도 자료 뽑고서 본 거밖에 없으니까, 실제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십니까?

○강신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금란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하고 그러십니까?

○의장 조동준

가지 않는 걸로……

○공금란 위원

안 가신다고요?

○의장 조동준

예.

○공금란 위원

가는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나?

아, 위원으로만 들어있었나?

○의장 조동준

아까 저희 규칙에서 가는 의원님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영국 간다고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가 96년도부터 이장을 하면서 발전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서천군에 보면 군유지 국유지가 너무 사용가치가 있는데도 일반인한테 세를 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장할 때는 이런 거는 일반인한테 세를 주면 안 된다 해도 일반인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를 안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천군에.

그런데 발전소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저를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원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런던 같은데 영국을 갔을 때 보면은 장항제련소라든가 지금 동백정이나 이런 데가 걸맞은 일인데 제가 동백정 복원에 대해서 복원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복원보다는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 해서 그때 당시 옛날에 96년도에 한선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실 적에 거기에 화훼단지 만들자고 했어요, 제가요.

지금 화훼단지 현재 만들려고 하면 한 동에 60억 정도 들어가요. 82,000평이라고 하면 10동

이상 짓는데 600억에서 700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좋으나 동백정 복원이 좋냐 그랬던 것인데 우리 서면사람들이 서천군민들이 진짜 그런 데는 안 가보고. 그래서 나는 꼭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장항제련소나 생태원 복원에 관한 결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님들이 가시면 진짜 온실이 어떤 건가…… 발전소에 온실 했던 것은 왜 그런 애길 했었냐면 발전소에 지금 100만키로 나오는 온수배관을 그쪽 10동 라인에다 놓으면 한 달 전기요금만도 1,000만 원씩이 안 들어가요. 하루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좋냐 이랬던 것인데 지금 서면사람들은 강신두는 복원을 왜 반대했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원이 좋냐 이렇게 좋냐 했던 것인데.

이 일정을 보면 6일 동안 나는 제일 좋아했던 것은 이거예요. 온실 하는 걸 이런 것을 확실히 복원할 수 있는 거 동백정이나 제련소에 걸맞은 거 이런 걸 의원님들이 잘 갔다 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외국은 내가 의원하면서도 안 갈 것이고 다음에 내가 앞으로 3년 잘해서 재당선 한다고 해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아직 국내도 다 못봤는데 외국을 왜 갑니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농촌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외국에 가서 뭐 선진 농사짓는 걸 배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농사 더 잘지어요, 지금요.

○최병용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은 지금 이 과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강신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배워서 오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장 조동준

예, 잘 참고 할게요.

○나미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실 영국은 참여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점은 공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다녀와서 저희 지역하고 뭔가 연계가 맞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전보다는 많이 군의원님들 외국에 다녀오셔도 지금은 많이들, 뭐라고 할까, 그전처럼은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시골하고 지금 서천군하고 맞는 연계에 대한 곳을 다녀와서 그거 하고 맞춰진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진연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시고서 거기 영국도 옛날엔 찬란했는데 지금은 많이 후진됐어요. 이것저것 다 향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양기순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영국의 여러 곳을 다니는데 우리가 여행을 다니거나 무엇을 견학을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영박물관을 갔어요, 거기 대영박물관을 보고 나서 우리도 그냥 대영박물관이든 이든프로젝트든 그런 데를 가서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제가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더 미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내실있는 국외출장이 되려고 하면 단순히 가서 보는 것 말고 우리가 그 지역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어떤 직접적인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끼리 돌아다녀서 어떻게 뭘 배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시기 전에 방문하는 그쪽에 현장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선행돼야 조금이라도 더 내실있는 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 조동준

일단 공식방문지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처럼 당연히 관계기관에 관계자를 통해서 저희가 미팅을 하고 실제 질의 답변을 진행을 하는 일정으로 잡고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연

의결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의장님과 가시는 의원님들이 종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 또 말씀하세요.

○공금란 위원

이런 말씀 왜 나오냐면요. 그때 한창 생태원 때문에 --- (청취불능) --- 프로젝트를 환경부하고 나소열 군수님하고 다녀왔잖아요. 저희가 그 뒤로 갔는데 그 관계자들이 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둘러만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감독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 스케줄도 다 잡아주고 엄청나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그때 환경부랑 서천군수님이랑 갔을 때 이분들은 안 만나고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의장 조동준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일정별로 그날 그날 자체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또 보고서에 미팅한 당사자들 대상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수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것들에 대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관계자들과 미팅 이런 게 안 잡힌다거나 못 잡는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일정에 안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은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조진연

신상에 위원님.

○신상에 위원

저는 2월초에 영국을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축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에서 하는 축산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보니까 선진지 견학해서 갔거든요. 영국을 가가지고 축산 하는 쪽을 봤어요. 그분들은 따님하고 이렇게 가족운영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도 가족형으로 이루어지지만 거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우리가 북유럽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점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배우

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런던 시내를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런던은 참 깨끗한 거리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가다보면 주위가 또 깨끗하기도 하고. 저희가 박물관 그쪽으로 여행을 7박 9일인가 그렇게 갔다 왔어요. 왔는데 단순히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서 무조건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고 하면서 가서 지역을 보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같이 접목하고 같이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닌 거 같고 해서……

○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종성 위원님 한마디 하세요.

○김종성 위원

저는 궁금한 점이 이 출장자 명단에 혹시 외부전문가는 같이 갈 수 없는 건가요?

○의장 조동준

일단 저희 출장내역에서 외부기관에서 참여하는 건 그분들이 사실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는 가능한데. 제한되어 있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으로 섭외해달라고 각별하게 부탁을 해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자체워크숍을 가기 전에 의원님들끼리 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부분들 질문을 각 대상지별로 질문할 내용들이나 중점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전에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연

의견들을 다 제시 해주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 부결, 조건부

가결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공금란 위원

조건부가 뭔데요?

○위원장 조진연

가결, 부결, 조건부…… 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각자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의견이 확실히 다 일치가 안 됐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논의한 것을 다시 한번…… 말 그대로 가결시켜주느냐 전체를 부결하느냐 아니면 조건부로 다시 보내느냐 이것을 지금……

○공금란 위원

그럼 원안가결은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고 부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건부라고 하면 조건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조건부는 제가 제시하는데 제가 명확히 해드리면 일정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인원은 2명 줄이는 조건으로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조진연

예, 그래서 의견들이 각자 틀리시죠.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정회 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표결 또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 보내주시는 거냐 아니면 조건부로 2사람을 빼고서 하는 거냐. 그렇죠, 공 위원님?

○공금란 위원

네.

○위원장 조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찬반여부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이라는 것은 하나는 전체를 원안대로 보내는 것이냐 아니면 조건부 아까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사람 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중 ---

수고들 하셨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조건부 찬성 1표, 조건부는 직원들 2명을 빼는 결로 되어 있었어요.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두 위원

공금란 위원

김중성 위원

나미혜 위원

신상애 위원

양기순 위원

조진연 위원

최병용 위원